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아서 (17)

새 조국건설을 위한 길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 길이 빛나리

조선혁명박물관의 17호실에 들어선 우리는 강사의 안내를 받으며 첫 벽면에 섰다. 벽우에 부착되어있는 《우리의 영명한 명도자 김일성장군 만세!》라고 쓴 프랑카드형식의 글발이 류팔리 눈길을 끌었다. 조국해방의 기쁨을 맞이한 인민들이 손에손에 높이 들었던 프랑카드가 그대로 벽면우에 형성되어 있고 목청껏 해방만세를 부르는 인민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자료를 배경으로 당시의 많은 출판물들이 진시되어있어 참관자들은 72년전 강산을 진감하면 해방열을 뜨겁게 느껴볼수 있었다.

강사는 평양과 서울에서 명망높은 인사들이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를 맺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실 준비를 한데 대하여서와 해방된 각 지역에서 인민의회를 조직하고 인공반역자등을 적발수형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인대 대해 구체적인 사실자료를 들어가며 생동하게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당시 나라에 조성되었던 복잡한 정세에 대하여 알려주었다. 강사는 천리태인의 예지로 해방조선의 실태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제 34 (1945)년 8월 20일 조선인민혁명군 군사정치간부들의 회의를 소집하시고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부강하고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할때 대한 새 조국건설로선과 그 실현을 위한 전당, 전군, 전민의 3대과업을 제시하시었다고 하면서 참관자들을 다음벽면으로 이끌었다.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상사진문헌앞에 선 참관자들은 숭엄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었다.

벽면우에는 《전당》, 《전군》, 《전민》이라는 글발들이 형성되어있고 아래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해방전쟁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

에 대하여》, 《진보적민주주의의 대하어》가 진시되어있었다. 그 옆에 해방된 새 조선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가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들은 항일무장투쟁과정에서 이룩한 고귀한 혁명적전과 불후한 투쟁경험에 토대하여 전당, 전군, 전민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새 조선 건설의 필사적과업을 반드시 빛나게 수행해야 할것입니다.》

강사는 새 조국건설의 리정표를 마련하시고 그 준비사업까지 다 갖추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성에 대하여 세세히 말씀하시며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용히 평양에 오실 때였다고 한다. 어느 한 지방당의 일꾼들과 도동조협대표들, 유지를 만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내의 어느 당파나 조직도 특정한 주권을 가지고 전국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것을 알게 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조선이 나아갈 길은 진보적민주주의의 길이며 해방된 조국땅에 세워야 할 국가는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국건설로선과 그 실현을 위한 전당, 전군, 전민의 3대과업을 제시하시었다고 하면서 참관자들을 다음벽면으로 이끌었다.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상사진문헌앞에 선 참관자들은 숭엄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었다.

벽면우에는 《전당》, 《전군》, 《전민》이라는 글발들이 형성되어있고 아래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해방전쟁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

에 대하여》, 《진보적민주주의의 대하어》가 진시되어있었다. 그 옆에 해방된 새 조선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가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들은 항일무장투쟁과정에서 이룩한 고귀한 혁명적전과 불후한 투쟁경험에 토대하여 전당, 전군, 전민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새 조선 건설의 필사적과업을 반드시 빛나게 수행해야 할것입니다.》

강사는 새 조국건설의 리정표를 마련하시고 그 준비사업까지 다 갖추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성에 대하여 세세히 말씀하시며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용히 평양에 오실 때였다고 한다. 어느 한 지방당의 일꾼들과 도동조협대표들, 유지를 만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내의 어느 당파나 조직도 특정한 주권을 가지고 전국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것을 알게 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조선이 나아갈 길은 진보적민주주의의 길이며 해방된 조국땅에 세워야 할 국가는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국건설로선과 그 실현을 위한 전당, 전군, 전민의 3대과업을 제시하시었다고 하면서 참관자들을 다음벽면으로 이끌었다.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상사진문헌앞에 선 참관자들은 숭엄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었다.

벽면우에는 《전당》, 《전군》, 《전민》이라는 글발들이 형성되어있고 아래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해방전쟁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

에 대하여》, 《진보적민주주의의 대하어》가 진시되어있었다. 그 옆에 해방된 새 조선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가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들은 항일무장투쟁과정에서 이룩한 고귀한 혁명적전과 불후한 투쟁경험에 토대하여 전당, 전군, 전민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새 조선 건설의 필사적과업을 반드시 빛나게 수행해야 할것입니다.》

강사는 새 조국건설의 리정표를 마련하시고 그 준비사업까지 다 갖추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성에 대하여 세세히 말씀하시며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용히 평양에 오실 때였다고 한다. 어느 한 지방당의 일꾼들과 도동조협대표들, 유지를 만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내의 어느 당파나 조직도 특정한 주권을 가지고 전국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것을 알게 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조선이 나아갈 길은 진보적민주주의의 길이며 해방된 조국땅에 세워야 할 국가는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국건설로선과 그 실현을 위한 전당, 전군, 전민의 3대과업을 제시하시었다고 하면서 참관자들을 다음벽면으로 이끌었다.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상사진문헌앞에 선 참관자들은 숭엄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었다.

벽면우에는 《전당》, 《전군》, 《전민》이라는 글발들이 형성되어있고 아래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해방전쟁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

에 대하여》, 《진보적민주주의의 대하어》가 진시되어있었다. 그 옆에 해방된 새 조선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가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들은 항일무장투쟁과정에서 이룩한 고귀한 혁명적전과 불후한 투쟁경험에 토대하여 전당, 전군, 전민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새 조선 건설의 필사적과업을 반드시 빛나게 수행해야 할것입니다.》

강사는 새 조국건설의 리정표를 마련하시고 그 준비사업까지 다 갖추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성에 대하여 세세히 말씀하시며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용히 평양에 오실 때였다고 한다. 어느 한 지방당의 일꾼들과 도동조협대표들, 유지를 만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내의 어느 당파나 조직도 특정한 주권을 가지고 전국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것을 알게 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조선이 나아갈 길은 진보적민주주의의 길이며 해방된 조국땅에 세워야 할 국가는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국건설로선과 그 실현을 위한 전당, 전군, 전민의 3대과업을 제시하시었다고 하면서 참관자들을 다음벽면으로 이끌었다.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상사진문헌앞에 선 참관자들은 숭엄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었다.

벽면우에는 《전당》, 《전군》, 《전민》이라는 글발들이 형성되어있고 아래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해방전쟁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

에 대하여》, 《진보적민주주의의 대하어》가 진시되어있었다. 그 옆에 해방된 새 조선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가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들은 항일무장투쟁과정에서 이룩한 고귀한 혁명적전과 불후한 투쟁경험에 토대하여 전당, 전군, 전민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새 조선 건설의 필사적과업을 반드시 빛나게 수행해야 할것입니다.》

강사는 새 조국건설의 리정표를 마련하시고 그 준비사업까지 다 갖추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성에 대하여 세세히 말씀하시며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용히 평양에 오실 때였다고 한다. 어느 한 지방당의 일꾼들과 도동조협대표들, 유지를 만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내의 어느 당파나 조직도 특정한 주권을 가지고 전국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것을 알게 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조선이 나아갈 길은 진보적민주주의의 길이며 해방된 조국땅에 세워야 할 국가는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국건설로선과 그 실현을 위한 전당, 전군, 전민의 3대과업을 제시하시었다고 하면서 참관자들을 다음벽면으로 이끌었다.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상사진문헌앞에 선 참관자들은 숭엄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었다.

벽면우에는 《전당》, 《전군》, 《전민》이라는 글발들이 형성되어있고 아래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해방전쟁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

에 대하여》, 《진보적민주주의의 대하어》가 진시되어있었다. 그 옆에 해방된 새 조선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가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들은 항일무장투쟁과정에서 이룩한 고귀한 혁명적전과 불후한 투쟁경험에 토대하여 전당, 전군, 전민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새 조선 건설의 필사적과업을 반드시 빛나게 수행해야 할것입니다.》

강사는 새 조국건설의 리정표를 마련하시고 그 준비사업까지 다 갖추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성에 대하여 세세히 말씀하시며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용히 평양에 오실 때였다고 한다. 어느 한 지방당의 일꾼들과 도동조협대표들, 유지를 만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내의 어느 당파나 조직도 특정한 주권을 가지고 전국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것을 알게 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조선이 나아갈 길은 진보적민주주의의 길이며 해방된 조국땅에 세워야 할 국가는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국건설로선과 그 실현을 위한 전당, 전군, 전민의 3대과업을 제시하시었다고 하면서 참관자들을 다음벽면으로 이끌었다.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상사진문헌앞에 선 참관자들은 숭엄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었다.

벽면우에는 《전당》, 《전군》, 《전민》이라는 글발들이 형성되어있고 아래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해방전쟁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의 미래를 시대와 혁명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한다》 발표 10돐 기념 보고 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의 미래를 시대와 혁명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한다》 발표 10돐 기념 보고회가 20일 만수대창작사에서 진행되었다.

보고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동지와 박순남동지, 안동훈 조선문학작가협회 중앙위원의 위원장, 황재봉, 미술부원 인준, 장작가, 교원, 연구자들이 참가하였다.

김정일 조선미술가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제 96 (2007)년 8월 21일 고전적로작 《우리의 미래를 시대와 혁명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한다》를 발표하신 것은 주체미술발전의 새로운 전환적기회를 열어놓은 중요한 사변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술가들은 우리 당의 문예방향을 높이 받들고 여러 가지 종류와 형태의 미술을 적극 발전시키며 사상예술성이 높고 특색있는 미술작품들을 많이 창작함으로써 혁명적인 창조시대 미술창작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합니다.》

보고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모택동에게 혁명적 건설의 모 든 분야에서 선구성이 일어나는 격동하는 선구시대의 요구에 맞게 조선회화를 그 특성에 맞게 발전시키는 데 대한 문제, 미술작품창작에서 유화의 비중을 높이며 미술가들이 정치사상적, 기술적수준이 높고 혼돈이 준비비율에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미술발전방향과 그 실현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고 말하였다.

선구시대 미술발전의 기본방향은 밝혀짐으로써 우리의 미술을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혁명적인 미술로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미술건설사상을 철저히 관철할 필요가 있다는오래가 마련되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로작이 발표된 이후 지난 10년간 전향화의 요구가 철저히 구현된 본보기작품들이 많이 창작되고 새로운 미술형식이 음악과 모래그림이 창조되어오는 사회에 소모임종이 일어났을것을 비롯하여 미술창작사업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사상비전의 정당성의 뚜렷한 파시도 된다고 언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제 미술발전에 쏟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적 령도에 의하여 찬란히 빛

을 뿌리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현히 높이 받들어오시며 발전시키는 데 대한 문제, 미술작품창작에서 유화의 비중을 높이며 미술가들이 정치사상적, 기술적수준이 높고 혼돈이 준비비율에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미술발전방향과 그 실현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고 말하였다.

선구시대 미술발전의 기본방향은 밝혀짐으로써 우리의 미술을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혁명적인 미술로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미술건설사상을 철저히 관철할 필요가 있다는오래가 마련되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로작이 발표된 이후 지난 10년간 전향화의 요구가 철저히 구현된 본보기작품들이 많이 창작되고 새로운 미술형식이 음악과 모래그림이 창조되어오는 사회에 소모임종이 일어났을것을 비롯하여 미술창작사업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사상비전의 정당성의 뚜렷한 파시도 된다고 언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제 미술발전에 쏟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적 령도에 의하여 찬란히 빛

을 뿌리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현히 높이 받들어오시며 발전시키는 데 대한 문제, 미술작품창작에서 유화의 비중을 높이며 미술가들이 정치사상적, 기술적수준이 높고 혼돈이 준비비율에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미술발전방향과 그 실현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고 말하였다.

선구시대 미술발전의 기본방향은 밝혀짐으로써 우리의 미술을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혁명적인 미술로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미술건설사상을 철저히 관철할 필요가 있다는오래가 마련되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로작이 발표된 이후 지난 10년간 전향화의 요구가 철저히 구현된 본보기작품들이 많이 창작되고 새로운 미술형식이 음악과 모래그림이 창조되어오는 사회에 소모임종이 일어났을것을 비롯하여 미술창작사업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사상비전의 정당성의 뚜렷한 파시도 된다고 언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제 미술발전에 쏟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적 령도에 의하여 찬란히 빛

백두산총대에 멸적의 기상 서리발친다

백두산총대가 번뜩인다. 가장 스러울 절친원수 미제와 그에 추종하는 적대세력들에 대한 분노로 정의의 총성이 서리발을 내뿜고있다. 70여년간이나 남의 땅을 가로막고있던 민족분열의 비극을 감호한 미제, 오늘을 우리의 앞을 보며 자라나고 있는 우리들의 가슴이 답답할 흥겨움에 사상 최약의 제제압박과 도발행동에 때려달리는 불구대천의 천후 미제를 단숨에 죽여버릴 기세를 떨치고 있다. 백두산총대기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아래 피어린 항일전과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사상 최약의 제제압박과 도발행동에 때려달리는 불구대천의 천후 미제를 단숨에 죽여버릴 기세를 떨치고 있다. 백두산총대기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아래 피어린 항일전과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사상 최약의 제제압박과 도발행동에 때려달리는 불구대천의 천후 미제를 단숨에 죽여버릴 기세를 떨치고 있다.

백두산총대기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아래 피어린 항일전과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사상 최약의 제제압박과 도발행동에 때려달리는 불구대천의 천후 미제를 단숨에 죽여버릴 기세를 떨치고 있다. 백두산총대기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아래 피어린 항일전과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사상 최약의 제제압박과 도발행동에 때려달리는 불구대천의 천후 미제를 단숨에 죽여버릴 기세를 떨치고 있다.

백두산총대가 번뜩인다. 가장 스러울 절친원수 미제와 그에 추종하는 적대세력들에 대한 분노로 정의의 총성이 서리발을 내뿜고있다. 70여년간이나 남의 땅을 가로막고있던 민족분열의 비극을 감호한 미제, 오늘을 우리의 앞을 보며 자라나고 있는 우리들의 가슴이 답답할 흥겨움에 사상 최약의 제제압박과 도발행동에 때려달리는 불구대천의 천후 미제를 단숨에 죽여버릴 기세를 떨치고 있다. 백두산총대기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아래 피어린 항일전과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사상 최약의 제제압박과 도발행동에 때려달리는 불구대천의 천후 미제를 단숨에 죽여버릴 기세를 떨치고 있다. 백두산총대기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아래 피어린 항일전과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사상 최약의 제제압박과 도발행동에 때려달리는 불구대천의 천후 미제를 단숨에 죽여버릴 기세를 떨치고 있다.

백두산총대기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아래 피어린 항일전과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사상 최약의 제제압박과 도발행동에 때려달리는 불구대천의 천후 미제를 단숨에 죽여버릴 기세를 떨치고 있다. 백두산총대기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아래 피어린 항일전과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사상 최약의 제제압박과 도발행동에 때려달리는 불구대천의 천후 미제를 단숨에 죽여버릴 기세를 떨치고 있다.

백두산총대가 번뜩인다. 가장 스러울 절친원수 미제와 그에 추종하는 적대세력들에 대한 분노로 정의의 총성이 서리발을 내뿜고있다. 70여년간이나 남의 땅을 가로막고있던 민족분열의 비극을 감호한 미제, 오늘을 우리의 앞을 보며 자라나고 있는 우리들의 가슴이 답답할 흥겨움에 사상 최약의 제제압박과 도발행동에 때려달리는 불구대천의 천후 미제를 단숨에 죽여버릴 기세를 떨치고 있다. 백두산총대기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아래 피어린 항일전과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사상 최약의 제제압박과 도발행동에 때려달리는 불구대천의 천후 미제를 단숨에 죽여버릴 기세를 떨치고 있다. 백두산총대기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아래 피어린 항일전과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사상 최약의 제제압박과 도발행동에 때려달리는 불구대천의 천후 미제를 단숨에 죽여버릴 기세를 떨치고 있다.

백두산총대기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아래 피어린 항일전과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사상 최약의 제제압박과 도발행동에 때려달리는 불구대천의 천후 미제를 단숨에 죽여버릴 기세를 떨치고 있다. 백두산총대기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아래 피어린 항일전과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사상 최약의 제제압박과 도발행동에 때려달리는 불구대천의 천후 미제를 단숨에 죽여버릴 기세를 떨치고 있다.

전국적 맹조직 일군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 출발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명도를 시작하신 57돐에 즈음하여 전국적맹조직일군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 출발모임이 20일 오전 10시 30분 만수대창작사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먼저 보전보전투승리기념탑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다.

모임에서는 리철중 직공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나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명도를 시작하신 57돐에 즈음하여 전국적맹조직일군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 출발모임이 20일 오전 10시 30분 만수대창작사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먼저 보전보전투승리기념탑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다.

모임에서는 리철중 직공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나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명도를 시작하신 57돐에 즈음하여 전국적맹조직일군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 출발모임이 20일 오전 10시 30분 만수대창작사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먼저 보전보전투승리기념탑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다.

모임에서는 리철중 직공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나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명도를 시작하신 57돐에 즈음하여 전국적맹조직일군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 출발모임이 20일 오전 10시 30분 만수대창작사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먼저 보전보전투승리기념탑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다.

모임에서는 리철중 직공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나라



1950년대 영웅전사들의 수형결사용위정신, 조국수호정신을 굳건히 이어갈 결의에 넘쳐있다. -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에서 - 본사기자 리명남 특송

위대한 병진의 기치높이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최후승리를 향하여 총돌격 앞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군중집회 시, 군들에서 진행

【평양 8월 20일합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군중집회 시, 군들에서 진행되었다.

지방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집회장에 참가하였다.

집회장들은 위대한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비열한 제재봉쇄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리고 일일단결,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사회주의의 마지막 결승전을 향하여 총돌격해나갈 각개총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세계에 끌어내리고자 하였다.

집회들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이 채택된 데 이어 연설들이 있었다.

기교 강국전선의 활로를 열어나갈 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영웅적 집일성-집정열로 통째로 전후 미제와 대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셔버리고 승리하며고로 당을 발돋움은 전세 대승의 자랑한 전승을 이어 갈 데 대하여 고조전군의 일장에서 힘차게 내달렸다고 말하였다.

반미대결전, 사회주의수호전의 가장 첨예한 전초선인 농업전선을 지켜선 농업근로자들이 전회의 애국농민들이 발휘한 투쟁정신으로 다수확을 통해 힘있게 밀려 적들의 제재봉쇄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지식인들이 주체의 혁각군, 군사강국의 지식인된 공지를 안고 청년들과 함께 지방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추동하는 과학연구성과를 더 많이 이룩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무엇한 수명정사용위정신, 조국수호정신을 지니고 현수들이 결전과 사회주의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해나갈 드립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과 조선인민군 전락군 대변인 성명에서 천명하였처럼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분별없는

《경정봉사》방에서 대령하여 조선인 도주면에서 위협적인 만용을 계속 부려댄다면 이데리에게 국의 비극적종말만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수장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무력으로 사수하는 전진단결의 자세, 반미가 되어 현수들이 결사적으로 전진할 때에 사회주의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해나갈 것이라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지식인들이 혁명의 빛 대를 총창치며 역세를 뛰어넘고 청년들과 함께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사회주의의 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해나갈 것이라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청년들이 집일성-집정열주의 청년동맹의 기치를 걸고 전진해나갈 때에 사회주의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해나갈 것이라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경에서 단 1초도 멈춤이 없이, 1mm도 예외 없이 곧바로 앞으로 단결된 전진해나갈 것이라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경에서 단 1초도 멈춤이 없이, 1mm도 예외 없이 곧바로 앞으로 단결된 전진해나갈 것이라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경에서 단 1초도 멈춤이 없이, 1mm도 예외 없이 곧바로 앞으로 단결된 전진해나갈 것이라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만리마사대의 격진정마사대에서 새로운 영웅정신화물을 다량적으로, 헌신적으로 창조하여야 할 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집일성, 정성, 단결, 강행, 법중공 등의 군중정신화물에서 자력갱생의 불멸의 불타오르는 불의 약탈한 제재책동을 짓부셔 사회주의의 마지막결승전을 향하여 총돌격해나갈 각개총 근로자들의 열의와 신념과 의지와 세 차례 분승되었다.

연일자들은 미제의 《제재》는 보복으로, 《대결》은 정의의 결사항전으로 맞받아나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높이 모시어 반미대결전에서 승리는 우리의 것이며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으시

세상에 없다는 것이 천만근의 가슴마다에 새겨진 억척불변의 전리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가장적제일주의기치에 지방공업공장에서 생산활동의 증진을 더 높이 올림으로써 우리를 질식시키고 미쳐남치는 현수들의 뒤를 추를 최격히 후회할 때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수호전선의 제1세대 제1선참호를 지켜선 책임감을 안고 언제나 건강되고 튼튼한 태세를 유지하며 당의 의도대로 과학농사방법을 일으키고 다수확을 통해 힘있게 밀려 적들의 제재봉쇄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지식인들이 지역경쟁의 기치를 필승의 보검으로 수

겨두고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와 생산정진에서 나오는 과학기술적새물을 원만히 끌어내려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청년들이 존엄높은 주체의 혁각군,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주인 된 자부심을 안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빛내이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선군시대 청년전위의 위력을 남김없이 펼쳐나갈 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연일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단결의 유일중심, 평등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의 비열한 제재책동을 짓부셔버려야 주, 선군, 사회주의의 불멸의 대를 따라 더욱 힘차게 나아갈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러는 군중시위들이 있었다.



안주군에서



합주군에서

다수확농업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올해 일대농작업에서 통상수확에 이바지하라!

대중의 정신력발동을 기본고리로 틀어쥐고

평안남도의 그 어느 포전에 가로막고 농사작업이 폐년없이 이루어지고있다. 주무의는 온 도에 다수확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고 다수확을 담보하는 포진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는 것이다.

이 성취를 두고 누구나 도당위원회가 당의 뜻대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괄하기 위한 사업을 총괄하고있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농업생산의 열쇠는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발동에 있다.》

농업근로자들이 다수확운동의 중요한 방도를 대중의 정신력발동에 두고 거기에 힘을 넣는다. 그러나 그 결과에서는 차이가 나곤 한다.

그 중요한 원인이 바로 대중의 정신력발동의 차이이다. 이것을 도입근로자들도 경이 잘 말해주고있다.

올해 도의 농사조건은 예년에 없지 않아 있다. 미결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으로 논밭갈이와 농작물비배관리에 필요한 연유와 비료 등 영농조건이 부족하였다. 여기에 더욱더는 황가물이 겹쳐 농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형편에서 다수확을 내다내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었다.

이 과정에 농업근로자들속에서 자기 포전에 많은 거둬를 내고 모란의 온도보장을 위해 수십만개의 황가물에는 농업근로자들이 모두가 위대한 수명정사용위정신의 열의를 뜨겁게 되새기며 담담 포전을 알뜰히 가꾸어나가게 하였다.

이렇게 보여주기사업도 철저위인들의 명도업적에 맞게 포진별로 다수확포진기준을 정해놓고 모두가 그 요구대로 비배관리를 진행하도록 과업을 주고 대책을 세웠다. 이렇게 하니 농업근로자들속에서 다수확포진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경쟁이 활발히 벌어졌다.

이런 회의는 자주 진행되어 도내에 다수확포진이 더욱 세차게 떠오르게 하였다.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 데서 이 못 일꾼들이 잘한 점은 또한 보여주기사업운동의 명도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배로 지향시각이다.

중간에 보여주기사업은 해당 영농공정별에 따라 순수 기술실무적인 문제들을 배워주는 방법으로 조직하였다. 하지만 올해에는 보여주기사업대상을 위대한 수명정사용위정신에 걸맞게 선별하고, 선별된 대상은 지도도면을 세워나간 것이다.

적은 비료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농작물의 생육을 보장한 사례를 소개하고,

올해 도적으로 비료량이 모자라 다수확을 내는데 커다란 난관이 조성되었다.

하지만 도의 책임일꾼들은 적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 결사의 각오를 안고 방도를 찾아나갔다. 이때에 그들은 사무원에게서 아니라 들끓는 현장에 나가 농장원들과 마주

인재증시로 다수확의 담보를

다수확운동에서 과학기술인재증시의 역할은 의실한 바에 이르다.

과학기술에 대한 일꾼들의 관심과 사업조직에 따라 그들의 피라는 사색과 탐구로 인하여 열매가 열어나 온을 내는가 하는 것이 결정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알곡증시의 담보를 과학농사에서 찾고 과학자, 기술자들을 배려해주고 적극 지원해준 도당위원회 일꾼들의 자량함안 하다.

다수확을 내는데서 인재증시의 역할을 증시한 도당위원회에서는 수시명령의 과학자, 기술자들도 돌격대를 꾸리 모든 시, 군에서 과학하고 그들의 사업을 적극 도와나왔다.

일꾼들은 하루에도 수십 리길을 걸어야 하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수고를 배아려 지원해주고 마른배를 풀어주고 그들의 과학적 열정을 그들의 과학적 열정을 성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사명도 깨닫고있고 있다. 그리고 현실에서 과학기술문제들이 제기될 때마다 그들과 협의하여 대책을 세워나감에 다수확운동에서 전진해나가는 담보를 높이기를 약속해주었다.

일꾼들의 이런 믿음과 정은 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한 사랑의 내력처럼 펼쳐졌다.

과학기술로 다수확운동에 이바지한 과학자, 기술자들의 불타는 열정과 비상한 창조정신의 열매 우람한 종의 종자가 마련되고 선진적인 제재기술과 방법, 여러가지 성장속진책들과 미량원소비료들이 개발되었으며 적은 비료로 그 고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다.

그러하여 불리한 기상조건에서도 시기별로 따르는 농작물들의 전진적인 생육 지표가 기준보다 앞섰으며 정량당 알곡소출을 높일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자재로 생산한 연유로 논밭갈이를

문턱군 통민협농장에 가면 류달리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모두 수제기기를 연유를 생산하고있는 것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비밀위협장 정영복동무의 말에 의하면 한개 로에서 하루에 평균 100~150kg의 연유를 생산하는 것이 농장에는 이런 로가 여러개나 있다고 한다.

미세한 비료와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으로 농사에 필요한 연유가 부족되자 농장일꾼들은 거대한 양이 안되지 않았다. 땅이 안겨는 자력자

비료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서 중시한 문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농업생산의 열쇠는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발동에 있다.》

다수확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안주에서 생육 후반기 농작물비배관리에 큰 힘을 넣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분무작업을 위한 물레대별 조 직하고 맑은 기간에 전세 논밭에 대한 일일단결투쟁을 진행하여 알곡증시의 담보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시에서 일일단결투쟁을 위한 물레대를 조직하는데는 그동안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시에서는 모래기를 적기에 팔고 김매기를 적시에 안고 이어 생육후반기 일일단결투쟁에 힘을 넣었다. 이것이 그대로 수확에도 영향을 주었다. 일일단결투쟁을 진행하여 알곡증시를 높인 남침협동농장 제2작업단의 작업이 대표적인 실례였다. 작업단에서는 분무작업을 위한 물레대를 조직하여 논밭 생육후반기에 일일단결투쟁

을 여러차례 진행하였다. 이렇게 하니 논밭의 후반기생육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었다. 우선 기온이 지나치게 올라갈 때 고온피해를 막고 빛합성능력을 높일수 있었다. 또한 이삭기기를 전후반 시기에 일일단결투쟁을 충분히 보장할수 있었다. 결과 일일단결투쟁을 준 작업단에 비해 전일단결투쟁에서 많은 차이를 가져왔으며 정보량 더 많은 알곡을 증수할수 있었단 것이다. 이것은 일일단결투쟁을 준 농업근로자들에게는 수확, 시적으로 높은 수확량을 증수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여기서 일꾼들이 받은 충격은 있다.

과학농법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수호전선의 제1세대 제1선참호를 지켜선 전초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할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올해 알곡증시를 기어올림해라.

이렇게 결심한 일꾼들은 올해에는 논밭의 생육후반기에 일일단결투쟁을 중시하면서 시적인 사업으로 면밀히 작정화

필지별영농지도를 짜고들어

다른 시, 군들과 마찬가지로 문턱군에서도 다수확포진이라는 말을 자주 들을수 있다.

우리의 만년 군협동농장영원회 기사장 박영남동무는 예년에 없이 논밭생육이 좋아지고있는 비결에 대해 말 할 때 다수확포진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곤 하는데 그 이유를 그에게 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때 시기 제시되는 당정책도 대중이 스스로 공감하고 자기이익으로 받아들일수 있게 권민정당하고 선택력있게 해설전전하여야 합니다.》

사실 군에서는 몇년전부터 알곡증시를 높이기 위해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인 것은 이 나지 못하였다.

원인은 현실에서 우월한 영농방법이 나왔지만 그것이 배 포진까지 도입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효율을 찾은 일꾼들은 도당위원회의 지도원에 배 포진들의 특성과 지력상태에 맞게 품종선별과 모종류, 비료량 등이 반영된 자료를 만들어 모든 농장원들이 그에 맞게 영농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농장원들을 과학기술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짜고드는 한편 필지별영농계획을 주고 그 수행정형을 수시로 료해하면서 대책을 세워나갔다.

농작물의 생육상태가 예년에 없이 좋아지는 농장원들속에서는 얼마든지 자기 포진에 다수확을 낼수 있다는 신심이 생기게 되었다.

여기에 맞게 군일꾼들은 모든 포진들을 다수확포진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더욱 힘있게 내밀었다.

우선 농작물의 생육상태를 구체적으로 조사연구하고 제시작업과 대책을 세워나가기 시작했다.

군에서는 대표적인 포진단을 위한 영농조사를 필지별로 진행하게 하였다.

조사내용도 논밭의 기와 일꾼, 아지주만 조사하면 종전과는 달리 일일단결투쟁과도, 부리복물까지 장악하였다.

이렇게 하니 논밭의 생육상태에 따라 비료투입과 영농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할수 있었다.

군에서는 고온현상이 지속되는데 맞게 포진수출대기, 표층수출대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부리복물들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었다.

이와 함께 이삭이 낫 한주입후부터 카리타면비료, 천연생물활성제 등을 일일단결투쟁에 투입하여 강하게 내밀었다.

이렇게 필지별도 영농지도를 짜고든 결과 포진들의 많은 포진들에서 지난해보다 이삭여기에 맞게 군일꾼들은 모든 포진들을 다수확포진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더욱 힘있게 내밀었다.

특파기자 오철훈



농작물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든다.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 온 나라에 혁명적기백이 차넘치게 하자

과학의 섬을 끊게 하는 체육열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 하여 전체 인민이 체육열기를 높이고 온 나라가 체육열기로 끓끓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불씨는 이렇게 지펴졌다

과학기술전당이 준공된 후 전당에서는 자기의 시명과 임무에 맞게 사업체계를 편이고 사업실적을 내는데 선자적인 힘을 냈다. 부거운 책임감을 지각한 일군들의 열의와 노력은 불꽃처럼 애로가 적지 않았다. 그에 전당에는 여러 단에서 일어난 사람들과 대학동업생들을 비롯한 수백명의 졸업생들이 단번에 모여오고 일군들도 각 사업을 시작하다시피 서로 파악을 하지 못해 어성비인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것이 혁명파업수행에도 지장을 주었다.

과학기술전당 일군들의 사업에서

3 3 등용하여 종합 2 등의 영예를 지니었다. 상임원지 얼마 안되어서도 오래고 풍부한 경기경험을 가지고있는 단원들을 불러들이고 순위에 입선한 과학기술전당의 대중체육활동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우리가 취재한 의하면 이곳 일군들에게는 집단이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킨 좋은 사업 경험이 있었다.

불씨는 이렇게 지펴졌다

어느날 리철운동부는 점심시간에 학기장에서 열어나오는 웃음소리를 듣고 그리로 가보았다. 여러명의 젊은 졸업생들이 경기를 하고있었다. 일군을 본 그들은 부쩍 속수터지며 하얀 경기를 중단하였다. 즐거운 분위기를 떨치고있지 않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생경한 리철운동부의 흥분은 《나의 한번 겨루어 보지 않겠는가?》라고 웃음기어린 목소리로 누구에게 물어볼 줄 몰랐다. 순간에 학기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저마다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나서는 것이었다. 경기가 시작되었다. 이미전부터 탁구, 배구, 정구를 비롯한 체육을 정상적으로 해온 일군들은 누구도 지지 못하였다. 일군도 졸업생들은 불류이양운명을 받아보는 부지의 진정한 실력자였다. 이를 통하여 그는 졸업생들을 바른 시립에 손잡듯이 과학하고 과학기술전당사업을 활기있게 내미는 데 대중체육이 관건적인 고려라고 보게 되었다.

불씨는 이렇게 지펴졌다

무슨 일에서나 일군들이 앞장에 서면 대중이 따라서기 마련이다. 하지만 불씨가 지펴졌다고 하여 곧 불길이 활활 라오르게 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졸업생들이 대중체육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는 데는 역시 혁신적인 방법론이 필요하였다. 이것이 전당의 일군들이 찾은 교훈이었다.

불씨는 이렇게 지펴졌다

체육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일군들은 지난해 태양열을 맞으며 처음으로 체육공장을 조직한 것을 걸심하고 조직요강을 작성하여 대 부서에 내보냈다. 비록 배구, 축구, 탁구 3개 종목의 경기대표와 경기일정도 작성되었지만 졸업생들에게 준 충격은 컸다. 점심시간과 퇴근시간 이후에는 배구장, 축구장, 탁구장에 모여드는 졸업생들이 점차 늘어났다.

남포항을 찾아서

혁신적으로 추동하는 힘의 원천

남포항은 책임일군들을 부러워할 정도로 대중체육활동을 적극 내미는 단원, 남포항 활기에 넘친 졸업생들의 체육활동도 흥성이 단원들의 단위로 알려져 있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대중체육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여 견지하고있는 체육방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찾아서 볼 때 활기찬 구름이 있는 체육활동의 열풍이 일어난다는 것은 졸업생들의 배구경기가 한창이었다. 우리는 반쯤이 넘는 졸업생들이 지금 단원배구경기를 진행하고있다고 알려주는 것이었다. 밤에 일풍을 더해준 불길은 활활 라오르마련이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열풍이란 바로 누구나 체육사업에 참가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세련된 조직사업이다. * * * * * 오늘 우리 인민의 체육열의는 매우 높다. 대중체육열풍을 일으키는 비결은 다음이 아닌 사업에 대한 열심한 관념을 지닌 일군들의 실천적모임과 대중의 마음을 잘 알고 실정에 맞게 조직사업을 따라세우는 진취적인 방법론에 있는 것이다. 과학의 섬을 침춘는 배기와 열정으로 부글부글 끓게 하는 체육열풍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사기자 김효실

남포항을 찾아서

지난 시기 항에서는 대중체육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체육관을 훌륭하게 일떠세우고 단원별로 야외배구장, 탁구장을 비롯하여 체육시설을 그르니 갖추어놓았다. 그렇다고 하여 졸업생들의 대중체육의가 저절로 높아졌다는 아니었다. 항에서는 유익일과 병립, 주요기념을 계기로 단원배구경기를 다양하게 조직하고 하였다. 이 나날에 졸업생들에서는 승부욕이 더욱 세졌고 대중체육활동은 활기를 띠게 되었다. 항일군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매일 같이 대중체육활동으로 흥성이 있는 졸업생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생각이 깊어진다. 우리 항의 혁명열의와 뜨거운 열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날의 저 항단적인 모습을 생각이나 할 수 있었을까?》 온 사회에 혁명적열정과 광만이 지던지라도 우리 근로자들에겐 혁명적열의와 열의가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묘한 혁명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항의 혁명적열의와 뜨거운 열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날의 저 항단적인 모습을 생각이나 할 수 있었을까? * * * * * 우리는 항에서 승리한 기쁨을 금치 못하는 항모부일군들을 만나 축하해주었다. 그들은 대중체육활동의 덕분이라고 자칭하는 다른 팀들을 비하한 자들의 수준은 아직 멀었다고 하면서 전국적인 대중체육경기에서 소문을 낸 항의 실력있는 선수들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었다. 그리고서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온 나라를 긍지에 넘쳐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본사기자 주영봉

모범체육학교로 되기까지

사리원시 대성소학교에서

시적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적이 높았으므로 알려진 사리원시 대성소학교는 학교체육사업이 잘되는 것으로 하여 더욱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해 정일봉상 전국청소년 학생체육대회 체육부문, 속도빙상경기 등에서 영예의 우승, 출세에 또다시 체육부문을 독수리 1 등. 이렇듯 학교 2 중모범체육학교로 자랑될만한 비결은 이렇듯 일군들이 학생들의 나이와 심리, 소질에 맞게 학교체육사업을 방법론있게 짜고든 데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학교에서 체육사업을 강화하여 학생들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키우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임무입니다.》 몇몇 건 어느날 교장사업을 시작하면서 학교체육사업을 도려하던 박선애동무는 한가지 소홀히 할수 없는 문제점을 포착하게 되었다.

확고한 관점, 일관한 조직사업

문평제련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나라에서 체육은 인민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들 자신의 사업입니다.》 문평제련소라고 하면 강건도나 문평시의 일군들은 한결같이 대중체육을 잘하는 단위로 이야기한다. 문평제련소에 대한 취재과정에서 우리는 그 비결도 역시 일군들의 대중체육사업에 대한 관점과 무슨 일이나 근거없는 내미는 일관한 조직사업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 * * * * 당조직에서는 한편 대중체육사업이 무엇에 다 하고 남는 시간에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정실적으로 진전되고 건강한 몸으로 혁명투쟁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필수조건이며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애국사업이라는 관념을 모든 일군들과 졸업생들에게 심어주는 사상교양사업을 짜고들었다. 제련소에서는 체육관건으로 만족하지 않고 대중체육사업이 더욱 활기를 띠도록 근거없는 사업을 조직하였다. 특히 제일 일감이 많고 생산이 건강하여 제련장장을 본보기로 정하고 여기서 대중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갔다. 열제련장장으로 말

확고한 관점, 일관한 조직사업

기로 걸심했다. 제련소당조직에서는 각 직장의 로동자들로 골라내려 온갖 생산과 함께 체육관건으로 두세 명 뽑고 갔다. 그 때로부터 1년후 체육관이 완공되었다. 생산은 계속되어 완공되면서도 체육관을 번듯하게 일떠세운 것을 본 사람들과 졸업생들이 자제와 조전을 타발하던 벼룩이 딱 뛰 어지게 되었다. 당조직에서는 한편 대중체육사업이 무엇에 다 하고 남는 시간에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정실적으로 진전되고 건강한 몸으로 혁명투쟁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필수조건이며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애국사업이라는 관념을 모든 일군들과 졸업생들에게 심어주는 사상교양사업을 짜고들었다. 제련소에서는 체육관건으로 만족하지 않고 대중체육사업이 더욱 활기를 띠도록 근거없는 사업을 조직하였다. 특히 제일 일감이 많고 생산이 건강하여 제련장장을 본보기로 정하고 여기서 대중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갔다. 열제련장장으로 말

과학기술보급실운을 짜고들어

6강과 5강, 공무직장을 비롯한 여러 단원의 일군들과 졸업생들이 과학기술보급실을 통한 학습에서 남다른 열성을 보이고 있었다. 일군들과 학습들은 과학기술 보급실을 적극 이용하여 식량생산에서 내서는 과학기술적인 문제들을 깊이 연구하고있었다. 과학기술보급실을 찾는 졸업생들의 수가 늘어나는 데 따라 일군들은 강, 직장, 부서별로 따르는 일련, 주말과학기술보급실 운영체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실천과학기술과 새로운 연구성과자료를 보급하여 과학기술을 파려주고 있다.

산림복구전투성과를 담보한 본보기창조와 일반화

운산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한 정성을 지닌 사람들이 푸른 숲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 강령수동무와 같은 한결같은 열의와 끈기, 단원들의 차이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로 해를 심화시키던 군일군들은 한가지 사실에 주목을 돌리게 되었다. 산림복구전투가 잘되고있는 단원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케외에서 복원로동자들의 산림행정을 직접 보고 이룬 산림복구전투의 명기창조로서의 역할을 완만히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성과는 앞선 단원들의 경험에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조직하고 전개한 군일군들의 혁신적인 사업기공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산물을 푸른 숲이 오르는 활강산으로 만들어 조성을 결실하면 반드시 한 단는 것을 현실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실 몇년전까지만 해도 군안의 적지 않은 산물에는 고난의 행군의 후과로 나무가 많지 못하고 참관목만 무성하였다. 땅의 뜻대로 가까운 앞날에 군안의 모든 산물을 푸른 숲이 오르는 활강산으로 만들어 조성을 결실하면 반드시 한 단는 것을 현실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란 사실들을 분석하는 군일군들의 생각은 깊어졌다. 참된 애국심과 함께 산림조성과 보호관리를 내미는 과학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려는 무한



